

# 목양칼럼

##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나라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선교팀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출발할 팀도 있고... 여러분들이 더위 가운데서도 뜨겁게 중보기도 해 주셔서 이렇듯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실 즈음에는 한국에 있을 것이고 오는 주간에는 중국도 다녀옵니다. 캄보디아 이야기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학교에서건 음악교육이 없습니다. 음악은 단지 노래방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할 뿐입니다. 인구의 삼 분의 일에 달하는 2백만 명이 학살되었다는 킬링필드(1975-78) 때에 이미 그들은 노래를 잃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가 운다”고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노래하는 새가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밤이라도 노래를 부르는데, 캄캄한 밤의 시간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노래를 잃은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복음은 노래를 잃은 사람에게 노래를 되찾아 준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은 이번 선교 중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고, 안경도 맞추어 주었고, 영어도 가르쳐 주었고, 미술도 가르쳐 주었고, 머리도 깎아 주었고, 머리도 감겨 주었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폭발 등을 통해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도 하였고, 지도자들에게 제자의 비전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결과로 캄보디아인들의 가슴에서 출발한 노래가, 그것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저들의 입을 통해 크게 불려졌습니다. 큰 상처를 입고 슬픔 가운데 잠겨 노래를 잃은 캄보디아가 다시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되기까지 무엇을 하여야 할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b>원로목사</b> 장영춘	<b>담임목사</b> 김성국
<b>부목사</b>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b>전도목사</b> 이진은 (646)220-8324	<b>다민족선교사</b> 송요한 (917)940-0596
<b>전도사</b>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황해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소유영/행정 (917)318-7030	진기웅/OPEM대학부 (201)835-3166
<b>교육전도사</b>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청년부 (917)736-3429
최다/중국어부 (929)204-6868	최진식/ (646)887-7419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b>직원</b> 장영춘/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b>찬양대</b>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김보라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윤인상
	반주 / 윤현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7월 23일  
제 43-30호

##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오인수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67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송동울 장로 2부 / 황인섭 장로 3부 / 황주현 장로 4부 / 이희영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14:15-24	사회자
찬양 CHORUS	거룩한 주 빛으로 살아가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나를 통하여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사람안에 계신 하나님	김경래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85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05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사회자
* 표는 일어섬		

## 주일 저녁 예배

오후 4:00 (7/23/17)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250	다같이
기도	함용식 집사
성경봉독	사회자
고린도전서 2:6-16	
찬양	찬양대
말씀	손요한 전도사
예비하신 모든 것	
찬송 304	다같이
광고	사회자
찬송 524	다같이
축도	김재형 목사

##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Galatians 5:26-6:10	
Prayer	Dn. Mary Cho
Sermon	Rev. Peter D. Kim

**“A Gospel Shaped Church:  
Keeping in Step with the Spirit”**

##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К. Левченко
Исаия(Is.) 43:1-5	
Молитва	В. Лян
Проповедь	Владимир Сон
Ты дорог в очах моих	

## 수요 기도 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오후 8:00 (7/26/17)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양	아이노스 오케스트라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에베소서4:25-32	
말씀	김재형 목사
예수님 닮기	
찬송 449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재형 목사

##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20:29-34	
证道	陈玉捷传道
瞎子的看见	

## 새가족 환영회

제 6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 가스펠스타 C 시즌 7

- 1) 접수기간: 8/19(토)까지
- 2) 부상: \$5,000 및 한국 본선 진출

## 단기 선교팀 파송

중국 (7/23-8/3)

## 교회소식

7월 선교의 달 - 가서 전하라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7/23(주) 중국 단기선교(7/23-8/3)	7/26(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7/31(월) 인디아 단기선교(7/31-8/12)	8/2(수) 지도원 성경공부
8/4(금) 에디오피아 단기선교(8/4-18)	8/11(금) 구역예배

### 알림

1. 가정예배와 성경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 단기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출발: 중국(23일), \*2017년도 선교 지역: 중국 (7/23-8/3), 인디아 (7/31-8/12), 에디오피아 (8/4-18), 할렘 (8/29)
3. 가스펠 스타C 시즌 7 안내 찬양 사역자의 등용문인 가스펠 스타 미주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찬양 사역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주관: 퀸즈장로교회, 단비기독교TV 2) 주최: C채널, 아가페문화재단 3) 접수기간: 8/19(토)까지 4) 상금: 미주대회 대상 \$5,000(+한국 본선 대상 \$10,000) 5) 문의: 윤원상 전도사, 단비기독교TV
4. 제2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Summer Music Camp 1) 일시: 8/22(화)-25(금) 2) 장소: 퀸즈장로교회 3) 문의: 최효진 권사, 김미언 집사
5. 2017년 Ainos Youth Orchestra 2기 및 기초반 연주회가 7/29(토) 오후 7시 양순관 에서 있습니다. \* 문의: 최효진 집사, 김미언 집사
6. 제자훈련 제 7기 훈련생 및 리더를 모집합니다. 1) 신청마감: 8/20(주). 2) 문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3) 일시: 9/7(목)부터 14주간, 오후 8-10시 4) 리더모집: 7/30(주)까지, 영성훈련 수료자로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리더로 섬기게 됩니다.
7. 여름철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7/29(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청년 선교부 (다음주: 지역장, 구역장)
9. 가족기부 장학기금 최상호 집사, 최정우 권사

### 새가족

이미란 (비비 2F12, 김현우 - 유아), 이인해 (청년선교 4Y2), 이근일 (청년대학 4Y1)

### 교우소식

출산 명준모 집사(명셋별 집사 3WCT) 가정에서 7월 16일 득녀(세현) 하셨습니다. 손요한 전도사(손명금 집사 2F3) 가정에서 7월 19일 득녀(기쁨) 하셨습니다.

### 담임 목사님 동정

캄보디아, 한국, 중국사역 (7/17-7/28)

### 금식기도자

월 / 오성태 한금자 송순애 김유미 김유진  
수 / 이양미 채현주 허숙연 채영주 이지영  
금 / 이양미 심인보 나승묵

주 / 이숙자 정주영 박병남 최리디아 박경수  
화 / 박병준 박정심 임광섭 임경민 박홍배 박수연  
목 / 채영주 김숙 장진숙 김청자 김기태 조영숙 채현주  
토 / 배강원 배혜리 심경선 나양숙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2부	오전 10:30		유아부		유아부실(2층)
	3부	오후 12:15		유치부		유치부실(2층)
	4부	오후 02:00		유년부		유년부실(4층)
	오후	오후 04:00		초등부		초등부실(3층)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토요모임 오전 9:00	중등부실(4층)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금요모임 오후 6:30	고등부실(3층)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유아부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중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 출석

1부 예배	342	러시아어 예배	29	영어부	32	중등부	55
2부 예배	307	청년 선교부	80	유아부	23	고등부	42
3부 예배	341	주일 저녁 예배	153	유치부	31	청년 대학부	32
4부 예배	171	새벽 예배	969	중국어 교육부	18	교회 학교 예배	414
영어 예배	169	수요 기도 예배	205	유년부	97	주일 낮 장년 예배	1732
중국어 예배	293	새가족 환영회	14	초등부	84	주일 낮 총계	2146

## 7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정길표 장로

헌신기도(다음주)	박영권 장로	허경화 장로	홍승룡 장로	김용생 장로
책임권사	윤지영 권사	전광인 권사	김은경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조한결 김서희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준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에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뵘뵘, 요한 주일식사: 교포부 (다음주: 디모테/에스데)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 이번 주의 소요리 문답

문 106)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인데, 이는 우리를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324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9장 1-6절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불러냅니다. 성 높은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택하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한 상을 베풀어 놓고 이 생명을 얻으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찾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 있기를 소원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516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9장 7-12절

거만한 자는 참 불쌍합니다. 거만한 자는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거나 책망할지라도 고마워하기는 커녕 도리어 화를 내고 책잡으며 미워할 뿐입니다. 거만한 자는 홀로 남게 되고 더욱 고립될 뿐입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모든 말에 나를 변호하려고만 합니까? 내 곁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나를 고쳐주려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듣기에 어려운 말을 용기내서 해주는데 고맙지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돕고 사랑으로 진실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94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9장 13-18절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가장 어리석은 점입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로운 곳으로 나가야 할텐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17) 합니다. 잘못을 고치려하기보다 잘못의 쾌락을 즐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 고치려 하나요, 아니면 눈을 감고 있나요?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나요, 아니면 타협

하고 적정선을 찾으려 하나요? 우리 가족이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길에 서있기를 소원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30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10장 1-9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기를 소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얼마나 그 반대를 바라는지요. 일은 조금하고 돈은 많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자가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둡니다. 가을 추수 때에 일하지 않고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지런하길 바랍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518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10장 10-21절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합니다(10). 의인의 입은 생명 샘이어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11).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지키지만 미련한 자는 입을 열고 멸망에 가까이 갑니다(14). 말이 많으면 허물을, 실수를 피하기 어렵지만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19).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살린다고 합니다(20,21). 우리 가정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199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10장 22-32절

여호와와의 도가 의인에게는 산성이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입니다. 부모님의 발자욱 소리가 엄마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리겠지만 엄마아빠 몰래 잘못을 저지르고 있던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붙들어주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나를 속박하고 자유를 빼앗고 어렵게하는 올무처럼 받아들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읽고 있나요, 부담스러워하며 멀리하고 있나요? 우리 가정이 여호와와의 도를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